

익산시, 여름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SFTS·세균성질환·수족구병 등 전광판 홍보 병원·공공시설서 손씻기 체험캠페인 진행

익산시가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여름철 감염병인 SFTS와 각종 세균성질환, 해외감염병, 수족구병, 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부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읍·면·동 이장회의 교육,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직무교육 등을 실시해 각 지역 생활 경로당에서 예방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잠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예방과 관리를 위해 전광판 홍보와 등산로 현수막 게시, 리플렛·기피제·토시 등을 배부했다.

또한 여름철 각종 감염병(장티푸스 등 세균성질환, 각종 호흡기질환, 수족구병, 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3일 익산병원과 함께 로비에서 손씻기 체험 캠페인을 시작으로 11일 원광대병원과 다중시설 등에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부바스를 활용해 손씻기 전·후를 비교하는

체험을 실시했다.

이어 초·중·고 학생들의 올바른 손씻기 습관을 위해 학교에 포스터를 배부하고 학교 자체에서 손씻기 교육을 하도록 당부했으며 316곳 병의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화장실에 손씻기 홍보 스티커를 배부해 부착할 예정이다.

손씻기는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수인성감염병의 약 50~70%는 손씻기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는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물로만 씻는 것보다 감염병 예방 효과가 높다.

앞서 익산시보건소는 상반기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로 홍역과 A형간염 확산을 막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 3월 도내 최초 홍역환자 발생 시에는 접촉자 1,000여명에 대한 모니터링과 밀접 접촉자 관리,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홍역항체 검사 실시 후 예방접종을 완료해 추가 홍역환자 발생을 차단했다. 이후 홍역에 대한 예방활동으로 원



익산시에 따르면 여름철 감염병인 SFTS와 각종 세균성질환, 해외감염병, 수족구병, 눈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광대학교병원, 익산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관내 소아과 의료인들이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포스터를 제작해 공공서와 의료기관, 다중시설 등에 부착함으로써 홍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를 진행했다.

A형간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 안내와 예방접종 독려를 위해 관내 각종 행사장에 포스터 부착과 리플렛을 들고 시민에게 찾아가는

홍보, 전광판 홍보, 시내 곳곳 현수막 게시, 의료기관 포스터 배부도 실시했다.

한명관 보건소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의 중요성 및 올바른 손씻기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야말로 최선의 감염병 예방이다"면서 "익산시는 7월~10월까지 '올바른 손씻기 운동'을 전개 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지역 대표 맛집 37업소 지정

친절서비스교육·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올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37개 업소를 지정했다.

8일 시에 따르면 2019년 군산맛집 지정업소 37개소(신규 1, 재지정 36)에 대해 지정증을 교부하고 영업자 친절서비스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맛집의 지정은 1차 서류 사전심의회와 2차 군산 맛집 발굴·육성 위원회의 현지평가를 통해 메뉴와 맛, 위생, 시설,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해 85점 이상을 획득하게 되면 최종 지정된다.

올해 신규로 지정된 맛집은 신둔쪽갈비(경안동 소재) 1개소로 메뉴의 맛은 물론 위생, 서비스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됐다. 신규 지정된 음식점은 지

정 표지판 부착, 상수도 사용료 감면, 위생물품 지원, 시 홈페이지 및 음식홍보책자를 통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는다.

지정된 맛집은 사후 관리를 위해 매년 재심사와 수시 적합 여부 심사 등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군산의 대표 먹거리 문화의 중심점이 되어 운영된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음식관광 문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군산을 찾는 관광객의 마음에 오래 기억되고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이 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맛과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군산 맛집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 홍보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시장직속 다문화 소통창구 설치 지시

정현을 익산시장 "전화위복 계기 다문화 포용도시로 나아갈 것"

정현을 익산시장이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문화 가족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장 직속으로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주 직원들과 함께 다문화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익산시가 다문화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조직 내에 다문화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극빈자 등을 포함하는 소수자 존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유라시아 다문화 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익산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여름철 악취와 관련해 일일보고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여름철을 맞아 또 다시 악취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여름에는 시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창문 활짝 열고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악취관련 사항에 대해 일일보고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8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다문화 가족의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창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장 직속으로 논의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 주 직원들과 함께 다문화 인권교육을 받았는데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익산시가 다문화 포용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정조직 내에 다문화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극빈자 등을 포함하는 소수자 존중을 위한 인권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각 나라의 문화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 있도록 유라시아 철도와 연계한 '유라시아 다문화 음식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익산시의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긍정적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현을 시장은 여름철 악취와 관련해 일일보고도 지시했다. 정 시장은 "여름철을 맞아 또 다시 악취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고 있다"고 설명하며 "올여름에는 시민들이 악취 걱정 없이 창문 활짝 열고 지낼 수 있도록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악취관련 사항에 대해 일일보고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운영

농기센터, 협의회서 유통 체계화 역할분담 등 논의 향후 5년 동안 국비 연계사업 신청자격 부여받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시가 오는 2023년까지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농업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지역 농업 농촌 현실에 맞는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향후 쌀과 식량작물의 생산·가공·유통계획 수립 및 적정 투자 계획,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과 지원 투자를 통한 농업 비전 마련을

목표로 수립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식량산업 분야의 발전 방향과 다각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RPC 및 DSC 7개 농협과 들녘 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및 식량관련부서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식량생산 및 유통 체계화 역할분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는 통상적인 행정주도의 획일적인 계획에서 벗어나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과 지역농협 및 식량관련 조직체들이 함

께 참여 했다.

또한 이번 계획수립 과정에서 용역업체를 통하지 않고 군산지역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 예산 절감 효과도 이뤄졌다.

이로써 향후 5년간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사업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다각화) 등 국비 연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문영업 농산물유통과장은 "승인된 식량산업 종합계획을 토대로 군산시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 조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식량산업 종합계획과 함께 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관서장 현장방문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8일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인 (주)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관서장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발생한 고양저유소 화재 발생을 계기로 관내 대량위험물 사업장의 관리 실태점검 및 시설물 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유증기 발생 증가에 따른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의 화재·폭발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 예방활동과 관계자의 안전관리 교육으로 실시되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위험물 누출 사고를 막고 화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비상대응 통합방재시스템 확인 위험물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대량 위험물 저장시설은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한 눈에 알 수 있는 민원안내 책자 제작

자립도시 군산시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안내하는 책자를 제작해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민원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운영 중인 민원, 일반신고사항, 알람정보 등을 수록한 '한 눈에 알 수 있는 민원 안내' 책자를 지난 6월초 제작해 배

포했다고 밝혔다. 186쪽 분량의 민원 안내 책자는 총 2500부를 제작해 통·리장, 경로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7개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배포 비치해 일반신고사항 및 지원 사업 등 유용한 정보 제공과 함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하고 있다.

민원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운영 중인 민원, 일반신고사항, 알람정보 등을 수록한 '한 눈에 알 수 있는 민원 안내' 책자를 지난 6월초 제작해 배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대표 이영근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